

삼국시대 무기

박경도, 106·107호 가야실·백제실 18:00~1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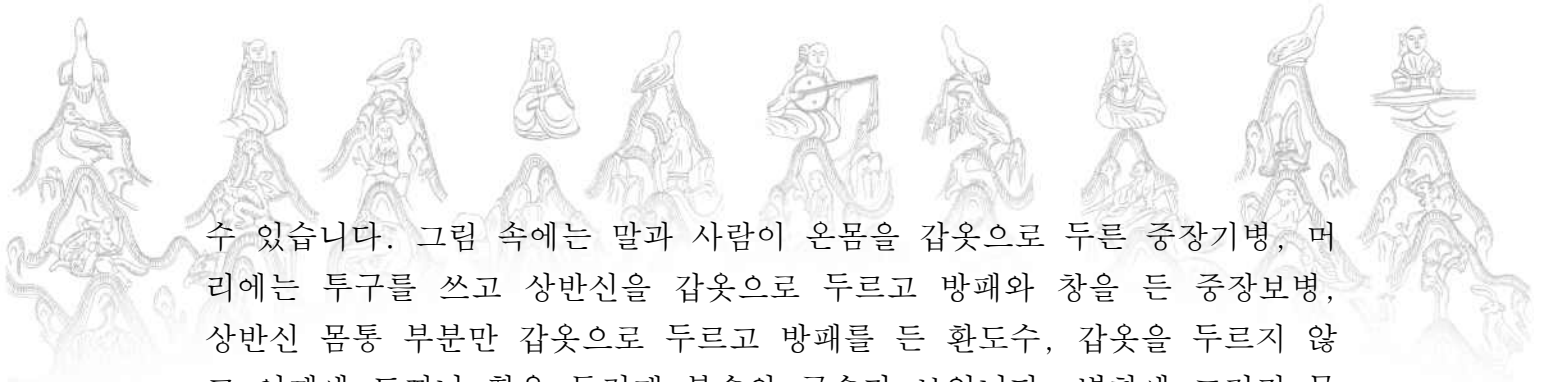
초기철기시대와 삼한시대를 거치면서 철은 새롭고 혁신적인 소재로서 점차 사용되는 범위를 넓혀 나갑니다. 철을 이용하여 따비, 팽이, 쇠스랑, 낫, 도끼 등 농공구류 뿐만 아니라 창, 칼, 화살촉, 갑옷과 투구 등의 무기류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철제농기구는 농업생산력을 높였으며, 철제무기는 삼국 간에 벌어진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도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기는 용도에 따라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로는 창, 칼, 활, 도끼 등이 대표적이고 방어용 무구로는 갑옷과 투구를 들 수 있습니다. 가끔 무기에 금이나 은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것도 확인되는데, 실제 전투에서 사용하는 실전무기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그것을 지닌 사람의 지위나 신분을 드러내주는 물품의 일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림1. 안악 3호분 행렬도

고구려의 무덤인 안악 3호분에는 수레를 타고 이동하는 주인공 주위를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행렬도가 남아 있어 당시 군대 구성의 일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말과 사람이 온몸을 갑옷으로 두른 중장기병, 머리에 투구를 쓰고 상반신을 갑옷으로 두르고 방패와 창을 든 중장보병, 상반신 몸통 부분만 갑옷으로 두르고 방패를 든 환도수, 갑옷을 두르지 않고 어깨에 도끼나 활을 둘러맨 부수와 궁수가 보입니다. 벽화에 그려진 무사들이 들거나 착용한 무기들이 삼국시대 무덤이나 성곽에서 발견되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무기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각기 서로 뚫고 막아야 하는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는 서로 경쟁하며 지속적으로 발전·개선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무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무기의 성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대와 현대의 무기는 종류나 성능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지만 본연의 기능을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비슷한 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시실에 소개되어 있는 삼국시대 무기를 살펴보면서 오늘날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면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689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8월 31일)

중국 도용의 이해

오세은, 309호 중국실 18:00~18:30

중국 사람들은 특별한 의식을 포함한 정신세계와 삶을 표현한 형상을 선사시대부터 무덤에 매장하였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날 독특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도용입니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도용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937년 허난성河南省 인쉬殷墟 (기원전 11세기)에서 출토된 한 쌍의 남녀 노예용으로 손발이 묶인 모습입니다. 이후 도용은 간혹 무덤에 순장과 함께 부장되다가 전국시대戰國時代 유교 등의 이념 학문이 발전되면서 황허를 중심으로 잔혹한 순장제도는 사라지고 그 대신 도용을 무덤에 본격적으로 부장하는 습관이 생겨납니다.

중국 도용은 고대 왕조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각 시대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진시황제秦始皇帝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그 세력을 만천하에 과시하고자 병마용을 만들었습니다. 한대漢代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기반으로 후장厚葬풍습이 유행하여 무덤에 다양한 종류의 도용을 부장하였습니다. 한대 도용은 진秦과 비교하여 그 크기가 축소되었지만 종류의 다양성은 중국 조각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남북조시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로 한족 풍습인 도용 부장은 뤼양洛陽을 중심으로 그 명맥만을 유지하였습니다. 부장된 도용은 진묘용, 의장용, 인물용, 동물용 등 4가지 기본 조합으로 그 풍습을 유지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간소화되었습니다. 이후 당대 세력의 팽창과 경제적 부흥으로 사회가 안정되면서 도용 풍습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당 중기 이후 도용을 삼채기법으로 만들면서 제작 기법과 수량 모두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대는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지방과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낙타, 아라비아말이 수입되었고, 이러한 이국적인 동물과 함께 당나라 땅을 밟은 외국인을 마부, 하인 등을 도용으로 묘사하여 무덤에 매장하였습니다. 국립박물관에는 한, 남북조, 당, 송대의 다양한 중국도용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기 위해 제작된 진묘용과 무덤의 입구를 지키던 의례용 도용, 이승의 생활을 편히 수발하기 위해 만든 생활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신십이지四神十二支”로 진묘수와 천왕용, 무사용 그리고 십이지신상입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옛날부터 ‘띠’를 중시했던



그림1. 석제 십이지신상, 전傳
민애왕릉, 통일신라 8세기

나라입니다. 무덤의 감실 4방향에 십이지신상을 3개씩 나누어 매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당 현종 이후부터 후기까지 유행했던 수수인신獸首人身(동물머리에 사람의 신체) 형상으로 신라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일신라 무덤에서 토제나 곱돌로 만들어진 수수인신의 도용이 출토되고, 왕릉의 봉분 둘레돌에도 수수인신의 십이지신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의 석불

양수미, 301호 불교조각실 19:00~19:30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무언가를 만든다면 어떤 재료를 선택해야 할까요? 금이나 은과 같은 귀한 금속이 될 수도 있고, 철이나 돌과 같은 내구성 있는 재료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의 불교도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해야 할 불상을 만들 때, 경주 주변에 풍부하게 있었던 ‘화강암’을 재료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역사적으로 수많은 불상들이 금, 은과 같은 귀금속부터 흙, 나무, 돌, 금동, 철, 도자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상들이 사라졌지만 돌로 만든 불상들은 오랜 시간에도 많은 수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4세기 무렵의 일이지만 석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6세기 후반 이후의 일로 추정됩니다.(그림 1) 우리나라의 석불은 단단하고 입자가 굵은 화강암이 주재료였기 때문에 조각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신라시대 이후 석불 제작 전통이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이곳 불교조각실에는 이 통일신라의 전통을 보여주는 불상 네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주 감산사 터에서 발견된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상은 7세기 초 통일신라시대 석불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상입니다.(그림 2) 함께 전시된 약사불좌상과 비로자나불좌상은 8세기 이후 석불 양식이 변천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석굴암 조각으로 대표되는 통일신라시대의 석불 제작 전통은 이후 고려로도 이어져 새로운 양식의 거대한 마애불과 석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림1. 화강암 채석흔(『백제인, 돌을 다스리다』, 국립부여박물관, 2022, p.19(삽도) 전재)



그림2. 미륵보살과 아미타불, 통일신라 719년 경, 경주 감산사 터, 국보

교과서 속 유물 탐구

조혜진, 113호 고려 I 실 19:00~19:30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고려청자’ 혹은 ‘금속활자’, ‘팔만대장경’ 등을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고려청자 상감기법의 우수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금속활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언제 처음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현재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 그 내용이 처음 나옵니다. ‘문화재를 통하여 고려 문화의 우수성을 알아봅시다’ 라는 소제목으로 고려청자와 인쇄술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고려청자의 비색과 상감청자 기법은 당시 중국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중국의 사신이 고려 개성에 머물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고려도경’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이 고려청자에 대해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자기의 푸른빛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한다. 근래에 만드는 기술이 정교해져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술병의 모양은 참외와 같은데, 위에는 작은 뚜껑이 있고, 술병의 겉면에는 연꽃이나 엮드린 오리 무늬가 있다”

고려청자의 비색과 상감청자 기법에 대해서는 중학교 역사책에는 더욱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감청자의 제작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금 박물관에서 보고 있는 다양한 청자의 사진들이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인쇄술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고려에서는 인쇄술이 크게 발달하여 다양한 서적들이 간행되었는데, 고려인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였다고 나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라는 단어만 들어도 흥미가 뚝 떨어지고 지루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우리가 아는 것들을 떠올려볼까요? 주먹도끼, 신라금관, 반가사유상, 고려청자, 백자 등, 모두 교과서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이 넓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내가 알고 있는 유물을 찾아보세요. 그 유물에 대해 배웠던 나의 학창시절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물이 그 시절에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교과서 속 유물 탐구는 바로 과거의 나를 추억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절의 나를 생각하면서 유물을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